

# 肥滿과 氣管支 喘息病

한약업사 李 東 洙



### • 철원사 이보살

婦人 肥滿者 100kg이 넘는 레스링 선수와 흡사하다. 이 보살은 光州지산, 유원지, 사찰, 철원사 내에서 점을 쳐주고 있다. 아침 부인들이 4~50명씩 운집되어 앞다투어 점을 치고 곳을 한다.

집사람이 그 곳을 다녀와서 하는말이 몸이 뚱뚱하여 더구나 기관지 서식이 극도로 심하여 걸음도 잘 걷지 못하니, 어느 하늘아래 내 병 좀 완치할 수 있는 의원이 어디 있는고 하시드라. 한숨을 쉬며 슬픔에 잠겨 있더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어 보았다.

“철원사요? 이 보살님좀 바꾸어 주시요” 했더니, 어느 사내가 절화를 받는다. 철원사 불살님 좀 바꾸어 주시오 거듭 요구하였으나 역시 남자가 “내가 이 보살이요” 하는 것이 아닌가? 무슨 사내가 여자행사를 하는가 기분이 몹시 상했다. “사실이요, 내가 이 보살이요. 기관지서식으로 15년을 앓았는데, 남자 목소리로 변질되었소. 光州 모 강내과가 나의 주치의요. 光州 부자집 광○당 건재한약방도 각각 10년간 주치의였으나 병은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. 선생님 이 병이 나올 수 있을까요?”

“우리약 3제면 나올 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” 하고 우선 한제를 지어 보냈다. 보살은 한제를 다 먹고 큰 민어만씩이나 큰 굴비를 한두릅을 들고 왔는데 이런 굴비가 어디서 났단 말인가. 청와대나 가지고 갈 굴비로써 지금쯤은 100만원도 호가하게 보였다.

다시 한제를 거듭지어 드렸더니 두제를 다 복용하고 또 그만한 굴비 한두  
릅을 사가지고 와서 또 한제를 지어드렸다. 석제(三劑)를 다 먹고 정상인으로  
비만이 회복되고 기관지 서식 숨가쁨이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살 맛이 난다고  
전화가 왔다.

### 處方：加味 紫莞湯

款冬花 1錢半, 桑白皮, 赤茯苓, 杏仁, 半夏, 只角, 桔梗, 楠紅, 五味子, 白朮,  
皂角刺, 紫莞, 麻黃 各 1錢, 防已 1錢, 薄荷, 甘草 各 5分, 砂仁, 山楂 各 1錢,  
鷄內金 3錢, 干三 召二

上記 3劑를 복용하시고 정상인 되었고, 기관지서식도 깨끗하여 지금 건강  
한 몸으로 생활하고 있다. 당 79歲 철원사 이보살(062)222-8825)

후일을 기하여 加味 防風通聖散 한제를 더 지어 주었다.

加味 防風通聖散 方藥合編下室 4.

加味 山楂砂仁防已 各 1錢 二分

鷄內金 3錢, 干三 召二

上記 兩處方은 氣弱人卽(瘦人) 使用不可

(瘦人) 服用不可

#### • 이미정 女史 당 33歲(서울 동작구 신대방 1동 618)

결혼 8년이 되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이곳저곳 한의원·한약방에서 임신  
된다는 말만 듣고 십 여제의 한약을 먹었으나 임신은 되지 않고 몸만 100kg  
이 넘어 레스링선수처럼 거인되어 노심초사 시골까지 찾아왔다는 것이다. 더  
구나 서울 어느 점쟁이 철학관에 찾아가 300만원 들여 산신굿을 하면 임신된

■ 肥滿과 氣管支 喘息病

다는 현혹에 속아 해보기도 했으나 허사였다는 것이다. 해서 氣管支喘息도 있어 加味 紫莞湯 山楂砂仁 1錢 鷄內金 3錢, 干三 召二 防已를 1錢5分하였더니 몰라보게 거의 正常人이 되었다. 그러나 조금 더 줄여야 하겠기에 加味 防風 通聖散 防已 1錢 5分 山楂砂仁 1錢 鷄內金 3錢 召二 干三 2劑 더 服用하였더니 正常人이 되었다.

上記 兩處方은 氣弱人 瘦人은 服用不可世.

## 腹部肥滿人

正傳 加味二陣湯

山楂肉 2錢, 香附子, 半夏 1錢半, 川弓, 白朮, 蒼朮, 楠紅, 白茯苓, 神曲 各 1錢, 防已 1錢 2分 干三 召二

男女三劑 복용하며 배가 시원스럽게 빠짐.

齒痛

風忠齒痛 二貼, 元甘草 6錢, 石古 4錢, 細辛, 天門冬, 紫胡 各 3錢

이빨이 흔들거리는 풍치 또는 충치를 약을 닳여 한참동안 머금고 또 머금은 뒤 식으면 뱉어버리고 또다시 머금고 식으면 뱉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면 치과에 갈 필요도 없고 이빨을 빼버리는 일도 없으리 만큼 건강하게 된다.

百日咳 = 백일기침

三貼 紫莞湯으로 완치 됨.

(건민원한약방(전통한방임신) 전남 장흥구 관산읍 죽교리 467-1 ☎ 061)867-2878)